

이코노 & 비즈 피플

윤생진 선진D&C 사장

“고졸 채용 확대, 균형사회 지름길”



공고 출신 생산직으로 금호아시아나 전무 지내
“정부·기업, 인사 시스템 개편해 제도 마련해야”

와 공공분야까지 ‘고졸 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학력 차별과 청년 실업 해소의 사회 분위기 속에 고졸 채용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졸 출신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무까지 올랐던 ‘고졸 성공 신화’를 써낸 윤생진(59) 선진D&C 사장은 최근 분위기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학력에 앞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 흑산도에서 태어난 그는 목포공고를 졸업하고 1978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 입사, 무려 7차례

리한 현재의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만드는 등 평등한 인사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고졸자에게는 대졸자보다 4년을 더 근무하면 이후 대졸자와 똑같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호그룹 인재개발원장을 맡고 있던 윤 생진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선진D&C를 이끌고 있다.
광주시 서구 송촌동에 자택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광주를 방문하는 그는 광주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멀어 몰류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전남지역이 다른 지자체보다 투자기업에게 훨씬 많은 메리트(이익)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사진=연합뉴스

“갑작스런 고졸 출신 채용폭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사행정 처원이 아닌 영구직 흐름으로 발전하도록 국가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금융권을 시작으로 산업계

폭우로 침수된 차 ‘자차담보’로 보상

26일부터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재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또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났던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물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아요”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여름 색조화장품 중 대표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선보였다. 매장 관계자들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이용해 눈화장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1돈 22만원... 금값 또 최고치 경신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27일 금지금업체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소매가는 소비자가 살 때를 기준으로 3.75g(1돈) 기준으로 22만원(부가가치세 10% 별도)이다.
이는 앞서 19일 달성한 역대 최고

가보다 550원 오른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금을 팔 때 가격도 사상 최고인 19만9000원으로 2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대한국제금속판매업중앙회가 회원에게 판매가격으로 권장한 금액은 24만7000원(부가세 포함)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박지현의 살김 레슨

■ 계피

도시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나는 안구 건조증부터 비염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달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낳은 첫 아이 역시 아토피를 앓았고 자라는 내내 가려움 및 음식물과 전염을 겪었다. 물론 모든 것이 좋아진 지금에 드는 생각이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내가 건강한 식생활법을 알고 실천하기까지, 그 으뜸의 비결은 바로 계피였다.
인스턴트식품 편하게 사 먹을 수 없고 먼지 하나 날려도 재채기 해대는 통에 청소며 음식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체질 덕분에 말이다.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그동안 먹지 않았던 탄산음료를 아직도 마시지 못한다. 대신 그 자리를 과일 주스나 수정과, 식혜가 대신했다. 덕분에 친정엄마는 손자에게 줄 식혜를 늘 만들어 내시더니 당도며 빛깔 그리고 쌀알 동동 뜬 것까지 완벽히 맞춤 줄 아는 식혜 박사사 다 되었다. 울여름 나는 계피를 샀다.
한어름에 계피는 여러모로 아주 유용하다. 여행할 때 날 때 직접 만든 수정과 한 병 얼려 가져가 보라. 특히 생선회를 드실 분이라면 필수다. 계피가 비브리오 패혈증에 항균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도 한차례 있었고 그 외에도 어지간한 배탈에 좋다 하니 여름 음료로 제격 아닌가? 수정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생강 한 주먹과 계피 몇 조각 그리고 대추 한 주먹을 20분 정도 중불에 끓여 내었다가 건더기를 거른 후 흑설탕을 넣고 다시 한 번 끓여주면 완성이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보다 더 탁월한 것! 바로 내가 매년 여름이면 계피를 구입하는 이유인데 바로 모기

소주와 4대1 비율 만나절 우려내
통에 담으면 ‘모기 퇴치 스프레이’



퇴치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골 사는 일이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모기와 전염. 첫 해만 해도 다리에 수십 군데 흉터를 달고 살았는데 요즘엔 아니다.
나름대로 퇴치법을 배우고 깨달았다. 먼저 몸에 뿌릴 수 있는 모기퇴치 스프레이, 소주와 4대1 비율로 계피를 만나절 이상 우렸다가 스프레이 통에 담는다. 야외활동 할 때 몸이나 수시로 뿌리면 되는데 바로 계피향을 싫어하는 모기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혹 아이가 너무 어려 소주도 그렇다 싶으신 분이라면 중불에 10분 동안 계피 물을 우려내자.
그리고 식혀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다. 한 병쯤 만들어 두었다가 휴가 떠날 때 챙겨 가거나 휴가 가는 이웃에게 선물해 주어도 좋겠다. 그 외에도 잘게 부숴 주머니에 담아 차 안 방향제로 써도 좋는데 하여간 계피로 인해 울여름도 든든해졌다. 고맙다 계피야!

TIP=계피의 약성을 즐기고 싶다면 20분 이상 끓이지 말아야 하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임신부라면 다량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담양역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신설

광주·전라·제주 관할... 문승석 본부장 내정

산업은행이 호남지역본부를 새로 신설한다.
산업은행은 8월 초 광산구 우산동 광주지점 건물에 호남지역본부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충청·호남지역



<문승석>

다. 문 신임 본부장은 강진 출생으로, 광주이고교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거쳐 산업은행 종합기획부서와 기업금융3실 총괄팀장, 목표지점 지점

장, 신탁부 부장 등을 지냈다.
문 신임 본부장은 산업은행 직원 후속인사 등 지역본부 인원이 꾸러지는 8월 초 정식활동에 들어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국 지점이 확장 추세에 있는데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새로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중은행 중 광주·전라권을 관장하는 호남지역본부를 둔 곳은 우리, 외환, 하나, 국민, 기업은행 5 곳이다.
/임동률기자 exian@

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매각 그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방식 제시로 논란이 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식에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담회에 앞

서 “매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 않으나, 더 두고 보자”며 “아직 홍 대표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참여해 다음 달 17일 예비입찰 마감을 앞둔 우리금융 매각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Eon-kyung Hanjeongshik' (銀江 韓正食)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dishes like 'Eon-kyung Jjimdang' (옛날방식 그대로) and 'Ssam-gaetang' (삼계탕). Includes a map of the location in Dong-gu, Gang-dong 51-4.

Advertisement for 'Jeonbuk-gui Jeonbuk-jangteo' (전북구이 전문점 전북장터) featuring seafood dishes like 'Jeonbuk-gui' (전북구이) and 'Jeonbuk-tteumppung' (전북쌈밥). Includes a map of the location in Gwangju-gu, Buk-gu, Yangsan-dong 367-12.